

# 유아기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척도 타당화 연구\* \*\*

## Validation of a Scale Smart Media Mediation for Young Children's Parents

신수아<sup>1</sup> 김지현<sup>2</sup>

Sua Shin<sup>1</sup> Jihyun Kim<sup>2</sup>

###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validate a scale which could measure the correct mediation behavior of parents for their children's smart media use.

**Methods:** The subjects were comprised of 514 parents of 5-year-old childre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Jasp.

**Results:** First, in the primary validation process, a total of 19 items and five factors were extracted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rough secondary validation process, we found that the scale model satisfies the goodness-of-fit evaluation criteria and is valid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newly constructed parents smart media mediation scale in early childhood emerged as a valid and reliable scale.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more parents pursue 'active mediation', 'instructive mediation', and 'supervision', and avoid 'co-viewing', and 'technical restrictions', the more they had a positive effect on children's smart media usage capabilities. Third, the total score of smart media mediation for young children's parents was found to significantly differentiate young children's smart media overdependence, and self-regulation.

**Conclusion/Implications:** The final smart media mediation scale for young children's parents was composed of 19 items, with five factors: 'co-viewing', 'instructive mediation', 'technical restrictions', 'active mediation', and 'supervision'.

**key words** smart media mediation, scale, validation, young children, parents

\* 본 논문은 2023년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본 논문은 2022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sup>1</sup> 제1저자

명지대학교 아동학 박사

#### <sup>2</sup> 교신저자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e-mail : jihyunkim@mju.ac.kr)

## I. 서론

영유아기는 뇌 신경망의 형성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로 만 3세 정도에 성인 뇌의 70~80%까지 성장한다(Sigman, 2012). 영유아의 뇌발달은 오감을 통한 감각경험과 타인과 직접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영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은 영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신체활동 수준, 수면시간 등을 감소시켜(Cohen et al., 2011; Sigman, 2009; 이종은 등, 2017) 원활한 뇌발달을 방해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마트미디어는 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유해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을 방해하는 위험한 매체로 인식되어 왔다(최이숙,

김반야, 2021).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며, 사람들은 스마트미디어를 여가와 온라인 학습, 비대면 업무환경 등에 활발히 이용하고(손영미, 신규리, 2021), 부모들은 스마트미디어를 유아의 학습과 발달에 도움을 주는 양육도우미로 활용하고 있다(최이숙, 김반야, 2021). 이렇다 보니 유아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모바일 양육(Mobile Parenting)’라는 용어가 탄생할 정도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Burroughs, 2017).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첫 노출은 75% 이상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스마트미디어 사용은 93% 이상 부모가 결정할 만큼(김민석, 문혁준, 2015) 부모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있어서 주요한 제공환경이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스마트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의점을 안내해주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규칙에 대해 설명해 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를 하면 스마트미디어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김은지, 2020) 반면, 부모가 별다른 제한 없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방임한다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량은 과다하게 증가한다(장지우, 김선희, 2022). 또한 미취학 아동인 유아는 부모가 원거리에서 지켜보고 필요시 도움을 주는 감독 중재를 많이 사용할수록 스마트미디어 사용량이 줄어든다(이창호, 장석준, 2022). 이처럼 스마트미디어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과 지도 패턴은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박라진, 2016).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는 텔레비전 중재를 시작으로 미디어의 형태 및 특성, 종류, 주요 사용 연령에 따른 정보통신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오며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Bybee et al., 1982; Livingstone & Helsper, 2008; Nikken & Jansz, 2006; Nikken & Jansz, 2014; Nikken & Schols, 2015; Valkenburg et al., 1999).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이 보편화되며 미디어 이용이 개인화되고 미디어를 사용하는데 기술 및 능력이 요구되면서 청소년들의 미디어 사용량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이숙정, 전소현, 2010). 이에 부모 미디어 중재유형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어졌다(Livingstone & Helsper, 2008; Nikken & Jansz, 2006). 그 후 2010년대에 들어서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 등장으로 촉발된 스마트 혁명(윤장우, 2013)으로 미디어 사용 연령이 급격하게 낮아지며, 새로운 정보통신환경을 반영하고 부모 미디어 중재의 새로운 유형을 살펴보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Nikken & Jansz, 2014; Nikken & Schols, 2015).

부모의 미디어 중재는 자녀의 미디어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과 지도 패턴에 기반한 양육행동의 일종으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는 중재유형들은 서로 유사한 부분이 존재한다(안정임, 2008; Valkenburg et al., 1999). 기존 선행연구들(Livingstone & Helsper, 2008; Nathanson, 2001; Nikken & Jansz, 2006; Nikken & Jansz, 2014; Nikken & Schols, 2015)에서 제시된 중재유형을 유사한 유형으로 분류하면,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량, 콘텐츠의 내용 등에 대해 통제 및 제한을 하는 ‘제한적 중재’, 부모가 자녀와 스마트미디어 사용과 관련한 올바른 사용법, 규칙, 부정적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적극적 안내’, 부모가 자녀가 시청한 스마트미디어 콘텐츠의 내용과 관련하여 실제적 의미, 등장인물의 행동 등에 대해 설명을 제공하는 ‘교육적 중재’, 부모가 자녀와 공통 관심사가 있는 콘텐츠를 단순히 공유하고 즐겨보는

것을 의미하는 ‘공동시청’, 부모가 원거리에서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지켜보며 필요시 도움을 제공하는 ‘감독’,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지도하기 위해 스마트미디어를 차단, 잠금하기 위한 안전 프로그램, 사이트, 앱을 활용하는 ‘기술적 제한’으로 나뉠 수 있다.

Nikken과 Jansz(2006)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비디오게임 사용에서 취하는 중재유형이 텔레비전 사용에서 취하는 중재유형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재유형의 이용양상 측면을 보면, 텔레비전 중재는 제한적 중재 중심으로 비디오게임 중재는 공동시청 중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차이가 있었다. 또한 2020년 어린이 미디어 이용조사 보고서(한국언론진흥재단, 2020)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의 미디어 사용을 지도하는데 있어 사용방법이나 사용경험과 관련한 대화를 하는 중재보다 이용내역을 체크하거나, 자녀가 미디어를 사용하는 동안 지켜보는 중재를 더 빈번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가 사용하는 중재유형의 이용양상이 정보통신 생태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최신의 정보통신 생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부모의 미디어 중재유형과 그 이용양상에 따른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기능이나 속성면에서 기존의 미디어들과 확연히 구분되지 못하고 경계점에 위치하는 모호한 성격의 미디어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미디어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 내리기 어려워졌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전통적 미디어로 정의되던 텔레비전도 터치스크린, 인터넷 등과 결합하여 스마트TV로 불리며 기존 텔레비전과 다른 사용방식이 나타났다. 기존 미디어와 최신 미디어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는 스마트미디어는 스마트폰, 스마트TV, 스마트패드, 노트북 등이 포함되어(윤보람, 2020) 기존의 미디어와는 차별화된 특성을 지닌다. 또한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며, 사람들은 스마트미디어를 여가와 비대면 업무환경, 온라인 학습 등에 활발히 활용하게 되었다(손영미, 신규리, 2021). 더불어 코로나 19 감염 확산에 따라 젊은 고학력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디지털 여가활동 시간의 증가가 전체 사회집단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서우석, 2021). 특히, 스마트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역기능인 유아동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은 코로나 19 이전인 2018년에 20.7%에서 코로나 19가 확산된 2021년 28.4%로 크게 증가하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이와 같이 코로나 19 이후 스마트미디어 사용의 가속화로 인하여 정보문화 생태환경이 변화하고 있지만 그 변화를 반영하여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유형을 살펴본 척도는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육아현장에서는 부모들이 다양한 중재유형을 활용해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양적, 질적으로 통제하고자 시도하지만 그 기준이나 방식은 각자 달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김은진, 2021). 부모들은 유아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의 주요원인으로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이용에 대한 훈육방법을 잘 모르는 것을 꼽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즉, 부모들은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지도하기 위해 활용해야 하는 올바른 중재유형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코로나 19와 스마트미디어의 일상화로 촉발된 새로운 정보통신 생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유아기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유형을 새롭게 구성하고, 각 중재유형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해 올바른 중재유형이 무엇인지 밝혀 실제 육아현장에서 부모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성이 있다.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역량을 대표하는 변인은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과 자기조절력이 있다. 먼저, 스마트미디어 과의존은 스마트미디어 사용으로 스마트미디어에 대한 사용조절력이 감소하고, 현저성이 증가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로 정의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공격성과 문제행동을 보이며(김나리 등, 2019; 박혜선, 김형모, 2016), 낮은 언어발달과 인지발달 수준을 보인다(김은지, 전귀연, 2020). 이처럼 스마트미디어 과의존은 유아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스마트미디어 역기능이다. 또한 부모가 어떤 유형의 스마트미디어 중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스마트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기도, 긍정적 영향이 늘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을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는 주요 요인이다(김은지, 2020; 이체진, 이영신, 2021; 조연하, 배진아, 2010). 따라서 스마트미디어 과의존은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역량을 대표하면서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에 영향을 받는 변인이다.

이어서 자기조절력은 스스로 상황을 고려하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적절하게 조절하는 역량을 의미한다(양옥승 등, 2020). 자기조절력은 스마트미디어 사용과 관련한 자극과 유혹을 이겨내고,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미디어를 균형적으로 사용하도록 돕는다. 즉, 자기조절력은 스마트미디어를 바르게 사용하도록 도와 스마트미디어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요인이다(김민희, 2015; 최아라 등, 2022). 또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대해 부모가 적절한 통제를 하거나, 함께 대화를 통해 규칙을 정하는 것과 같은 양육행위를 많이 할수록 유아는 스스로 주어진 상황을 적절히 통제하고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통제를 통해 한계를 설정하는 훈육방식은 유아가 스스로 정서를 통제하고, 행동에 대한 조절능력을 기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효정, 이희선, 2015; 설경옥, 문혁준, 2018). 즉, 부모가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중재하며 자녀에게 행하는 상호작용이나 지도 패턴은 유아가 스스로 상황을 고려해 욕구와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기조절력은 스마트미디어 과의존과 더불어 유아가 균형적인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미디어 사용역량 변인으로 볼 수 있으며,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방식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 19와 스마트미디어가 일상화된 최신의 정보문화 생태환경을 반영해 유아기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척도를 타당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다양한 부모의 미디어 중재유형을 포괄하여 최신의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유형을 밝히고,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역량을 중심으로 총점 산출방식을 모색하여 그 예측력을 살피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유아기 자녀의 건강한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지원하는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를 측정함으로써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수준을 파악하고,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유용한 가치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문제 1.** 유아기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기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유형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과 자기조절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유아기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충점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과 자기조절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절차

유아기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척도 타당화를 위해 문헌고찰 및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통해 예비문항을 선정하고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만 5세 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척도를 타당화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절차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전국의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만 5세 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 총 514명이다. 만 5세는 코로나 19로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유아기 전반을 보내며 정보통신 생태환경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연령이며, 생활적 측면에서는 초등학교 진학 직전으로 학령기에 비해 부모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의존도가 높고 스마트폰 소유 비율이 낮아(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부모의 중재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연령이라는 점에서 연구대상 자녀의 연령으로 선정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는 유아기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유형을 파악하는 것에서 나아가 유아기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역량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유형을 살펴보고 부모가 유아기 자녀의 주체적이고 건강한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어느 정도 중재하는가를 측정하는 척도로 타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자녀의 유아기 전반에 걸쳐 스마트미디어 중재방식을 확립하고,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가 자녀에게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된 만 5세 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포함하는 10부를 제외한 총 504명의 질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유아는 2016년 출생 유아로 평균월령은 70개월(64개월~75개월)이었다. 수집된 자료의 부모는 전체 504명(아버지 27.58%, 어머니 72.42%)이었다. 유아는 전체 504명(남자 51.39%, 여자 48.61%)이며,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평균 사용시간은 ‘평일’ 73분, ‘주말’ 138분이었다.

## 3. 연구도구

### 1) 유아기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예비척도는 Valkenburg 등(1999)의 ‘텔레비전 중재’ 척도 하위 유형인 교육적 중재(5문항), 제한적 중재(5문항), 공동시청(5문항)과 Nikken과 Schols(2015)가 개발한 ‘미디어 중재’ 척도의 하위 유형 중 적극적 안내(5문항), 기술적 제한(3문항), Nikken과 Jansz(2014)의 ‘인터넷 중재’ 척도의 하위 유형 중 감독(3문항) 총 26문항으로 구성하였고,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Valkenburg 등(1999)의 척도는 부모의 미디어 중재 행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처음으로 이론적, 통계적 타당화를 통해 개발된 척도로 이후 부모의 미디어 중재 척도 개발 연구들(Livingstone & Helsper, 2008; Nathanson, 2001; Nikken & Jansz, 2006; Nikken & Jansz, 2014; Nikken & Schols, 2015)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며 신뢰성과 타당성이 증명된 척도이다. 이와 더불어 2010년대 들어서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급격하게 낮아진 인터넷 사용연령을 반영한 Nikken과 Jansz(2014)의 ‘인터넷 중재’ 척도와 터치스크린 발달로 인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Nikken과 Schols(2015)의 ‘미디어 중재’ 척도의 중재유형을 포괄해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 2) 부모의 텔레비전 중재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Valkenburg 등(1999)의 ‘텔레비전 중재’ 척도를 사용하였다. 텔레비전 중재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교육적 중재(5문항), 제한적 중재(5문항), 공동시청(5문

항) 총 15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교육적 중재 .87, 제한적 중재 .66, 공동시청 .85로 나타났다.

### 3)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

공존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은 한국정보화진흥원(2016)의 ‘스마트폰 과의존 통합척도’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조절실패(3문항), 현저성(3문항), 문제적 결과(3문항) 총 9문항으로 구성된다.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전체 .84, 조절실패 .72, 현저성 .77, 문제적 결과 .74로 나타났다. 스마트미디어 과의존 총점 범위는 9~36점으로 9~23점은 일반군, 24~36점은 과의존위험군으로 분류한다.

### 4) 유아의 자기조절력

공존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한 유아의 자기조절력은 Kendall과 Wilcox(1979)의 ‘자기조절력 척도(Self-Control Ration Scale: SCRS)’를 국내 유아를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김경철, 오아름, 2014)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7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인지적 자기통제(10문항), 행동적 충동성(13문항), 인지-행동 공통(10문항) 총 33문항으로 구성된다.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전체 .90, 인지적 자기통제 .65, 행동적 충동성 .85, 인지-행동 공통 .70으로 나타났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오픈소스 통계 프로그램인 Jasp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척도 타당화 과정에서 문항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교차타당화(cross-validation)를 실시하였다. 교차타당화는 표집집단에서 문항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어진 문항들을 다른 표집집단에 적용해 그 문항들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전체 표집집단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집단에 따라 1차와 2차로 타당화를 실시하였다. 1차 타당화를 위해 각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 제거 시 내적 일치도, 문항-문항 상관, 문항-총점 상관을 산출하여 문항양호도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 타당화를 위해 각 문항을 기준으로 상·하위 25% 집단의 평균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문항변별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요인구성의 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후 최종적으로 구성된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표집집단을 대상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해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고,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여 구성신뢰도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판별분석을 실시하여 최종 구성된 척도의 공존타당도를 분석하고 총점 산출방식을 모색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척도 타당화

##### 1) 예비문항 분석결과

기존 부모 미디어 중재 관련 선행연구들(Nikken & Jansz, 2014; Nikken & Schols, 2015; Valkenburg et al., 1999)에서 밝혀진 중재유형을 포괄하여 총 26개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26개의 예비문항에 대해 아동학 전공 교수 1인, 아동학 박사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문항 이해도 및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 예비문항이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를 측정하기에 타당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스마트미디어 사용경험이 있는 만 5세 유아 자녀를 둔 부모 1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이 문법적 문제나 응답자의 이해과정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6개의 예비문항이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측정에 적절한 문항이며, 문장구성도 무리가 없음을 확인해 내용타당도와 안면타당도를 확보하였다.

##### 2) 표집집단

본 척도는 문항분석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교차타당화(cross-validation)를 실시하였다. 교차타당화는 일반적으로 많은 인원에서 자료 수집 후 전체를 무선적으로 5:5 혹은 6:4 정도의 비율로 나눈다(탁진국, 2007). 또한 요인분석에서 신뢰로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례수 대 측정변인 비율이 10:1 이상이 되어야 한다(Nunnally, 1978). 이에 수집된 총 504명의 표집집단을 표 1과 같이 26개 예비문항에 대한 타당화 1차 집단 260명과 축소된 19개 문항에 대한 타당화 2차 집단 244명으로 나누어 타당화를 진행하였다.

표 1. 표집집단의 특성

집단	1차		2차		전체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사례수(%)	81(31.15)	179(68.85)	58(23.77)	186(76.23)	139(27.58)	365(72.42)
	260(100)		244(100)		504(100)	

##### 3) 1차 타당화

1차 타당화를 과정에서는 만 5세 유아 부모 260명을 대상으로 26개 예비문항의 문항양호도를 살펴보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비문항의 왜도와 첨도를 검토한 결과 모든 문항의 왜도 절대값 2, 첨도 절대값 7 이하로 자료의 정상성에 문제가 없었다(Curran et al., 1996). 그리고 문항 제거 시 내적일치도와 문항-문항 상관, 문항-총점(요인별) 상관을 살펴본 결과 문항 제거 시 내적일치도가 상승하고 문항과 총점간의 상관이 낮은 m11문항을 제거하고, 남은 25개의 예비문항을 양호한 문항으로 판단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전, 수집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KMO의 표준적합



도(Kaise-Meyer-Olkin)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를 확인하였다. KMO의 표준적합도 .8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 2041.08( $df=71, p < .001$ )로 유의한 공통요인이 존재하여 요인분석에 적합한 수집 자료로 판단하였다. 이에 고유치 1 이상을 기준으로 이론적 가능성을 고려하여 요인 수를 추정하였으며,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고 직접 오블리민 방식의 사각회전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다섯 번의 반복계산에서 고유치 1이상인 요인 5개가 추출되었다. 1차, 2차 계산에서 요인부하량이 .40을 넘지 못한 m13, m19 문항을 순차적으로 제거하고, 3차 계산에서 제 6 요인이 2개의 문항(m12, m14)으로 추출되었으나, 고유치가 1이하이며 사회과학에서 하나의 요인은 3문항 이상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해(이순묵, 2000) m12, m14 문항을 제거하였다. 4차 계산에서 요인부하량 .40을 넘지 못한 m15 문항을 제거하고, 5차 계산에서 요인부하량이 .40이지만 기존 요인과 다른 요인에 포함되었고 요인 내 타문항들과 요인부하량 차이가 큰 m20 문항을 추가적으로 제거하였다.

제 1 요인은 기존척도의 ‘공동시청’을 구성했던 5개의 문항이 삭제 없이 추출되었고, 15.28% 설명량을 가지며 문항별 요인부하량은 .63~.77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요인은 기존척도의 ‘교육적 중재’를 구성했던 5개의 문항이 삭제 없이 추출되었고, 13.97%의 설명량을 가지며 문항별 요인부하량이 .53~.77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요인은 기존척도의 ‘기술적 제한’을 구성했던 3개의 문항이 삭제 없이 추출되었고, 9.77%의 설명량을 보였으며 .67~.86으로 적절한 요인부하량을 보였다. 제 4 요인은 기존척도의 ‘적극적 안내’를 구성했던 5문항 중 m19, m20 2개의 문항을 제외한 3문항으로 구성된 요인으로 7.77%의 설명량을 보이며 .60~.64로 적절한 요인부하량을 보였다. 마지막 제 5 요인은 기존척도의 ‘감독’을 구성했던 3개의 문항이 삭제 없이 추출되었고, 7.55%의 설명량과 .54~.73으로 적절한 요인부하량을 보였다.

이상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유아기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척도는 5개의 하위요인을 가진 전체 19문항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54.34%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유아기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척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번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고유값
	공동시청	교육적 중재	기술적 제한	적극적 안내	감독	
m6	.77	.02	.01	-.04	.10	.36
m8	.75	.01	.05	-.08	.05	.41
m7	.74	.02	.00	.13	-.02	.40
m10	.67	.06	.02	.03	.04	.48
m9	.63	-.01	.05	.04	-.23	.59
m3	-.08	.77	.05	-.04	.06	.43
m4	.05	.73	.06	-.08	-.01	.46
m5	-.04	.72	-.05	.21	-.09	.41
m2	.08	.72	.05	-.02	.00	.42
m1	.28	.53	-.13	.04	.17	.45

표 2. 계속

문항 번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고유값
	공동시청	교육적 중재	기술적 제한	적극적 안내	감독	
m21	.01	.06	.86	.02	-.08	.22
m22	-.08	.00	.67	.03	.17	.51
m23	.14	-.05	.69	.04	.04	.43
m17	-.14	.09	.08	.64	.08	.48
m18	.13	.04	.07	.63	-.01	.49
m16	.06	-.08	.03	.60	.11	.58
m26	-.02	-.04	.00	.04	.73	.46
m25	.04	.08	.13	.05	.55	.58
m24	.14	.10	-.04	.14	.54	.53
고유치	2.90	2.65	1.86	1.48	1.43	-
설명변량(%)	15.28	13.97	9.77	7.77	7.55	-
누적변량(%)	15.28	29.25	39.02	46.79	54.34	-

새로 타당화한 유아기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척도 19문항을 토대로 각 요인별 총점 간 상관 계수를 산출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상관계수가 .26~.59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3. 유아기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척도 요인 간 상관

하위요인	공동시청	교육적 중재	기술적 제한	적극적 안내	감독
공동시청	1.00				
교육적 중재	.48***	1.00			
기술적 제한	.26***	.41***	1.00		
적극적 안내	.41***	.29***	.55***	1.00	
감독	.59***	.44***	.31***	.59***	1.00

\*\*\*  $p < .001$ .

#### 4) 2차 타당화

다음으로 1차 타당화에서 구성한 5요인 19문항이 다른 집단에서도 신뢰로운지 확인하기 위해 타당화 2차 집단 만 5세 유아 부모 244명을 대상으로 문항변별도를 확인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성타당도 평가를 위해 첫 요인분석에는 기본적 요인구조 파악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지만 새로운 표본집단에서는 동일한 요인구조가 나오는지 확인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다(탁진국, 2007).

문항변별도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해 각 요인별 총점을 기준으로 상·하위 25% 집단의 평균차이를 검토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유의한 평균 차이가 나타나 19개의 문항 모

두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를 변별력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9문항, 5요인 구조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표 4를 보면  $\chi^2(df) = 267.30(142)$ 로  $\chi^2$ 을 자유도(df)로 나눈 값이 3이하로 적합하였고, GIF = .90, TLI = .93, CFI = .94, SRMR = .06, RMSEA = .06으로 평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유아기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척도 모형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chi^2$	df	GIF	TLI	CFI	SRMR	RMSEA	
							LO90	HI90
모형적합도 결과	267.30	142	.90	.93	.94	.06	.05	.06
기준	$\chi^2 / df < 3$		> .90	> .90	> .90	< .10	< .08	

\*\*\* $p < .001$ .

그림 1을 보면 각 문항별 요인부하량이 .52~.91로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이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어 수렴타당도를 확보하였다. 각 요인 간의 상관관계도 .26~.59 사이의 값으로 충분히 낮아 요인들이 독립적으로 분별이 가능해 변별타당도를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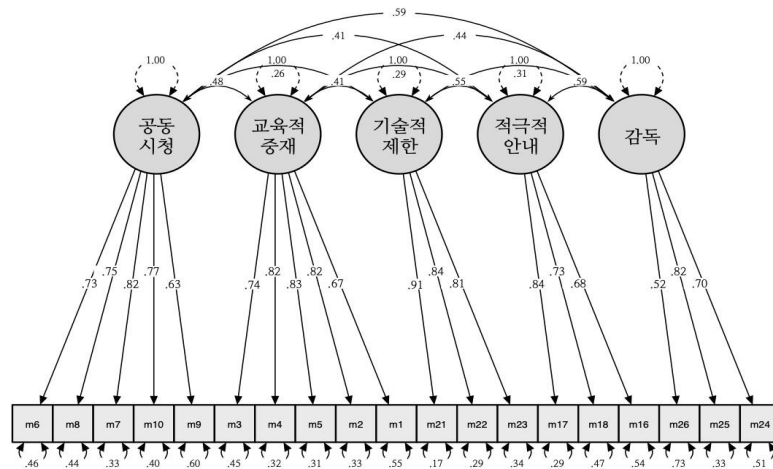


그림 1. 유아기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5) 수렴타당도 및 신뢰도 검정

앞선 교차타당화 결과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유아기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고 신뢰도를 검정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최종 척도의 수렴타당도와 신뢰도는 전체 표집집단 5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Valkenburg 등(1999)이 개발한 텔레비전 중재 척도의 하위유형인 공동시청, 교육적 중재,

제한적 중재를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유아기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척도 하위요인의 공인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것과 같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수렴타당도 분석

하위요인	공동시청 (요인 1)	교육적 중재 (요인 2)	기술적 제한 (요인3)	적극적 안내 (요인4)	감독 (요인 5)
공동시청	1.00***	.43***	.56***	.32***	.38***
교육적 중재	.43***	1.00***	.45***	.28***	.23***
제한적 중재	.21***	.02	.35***	.30***	.41***

\*\*\* $p < .001$ .

다음으로 신뢰도 검정을 위하여 문항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타당화한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전체 .88, 공동시청 .85, 교육적 중재 .84, 기술적 제한 .85, 적극적 안내 .76, 감독 .71로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를 측정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척도의 요인별 문항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척도 요인별 문항내용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내용	Cronbach's $\alpha$
공동시청	m8	나는 그냥 재미로 아이와 스마트미디어 콘텐츠를 함께 본다.	.85
	m7	나와 아이는 어떤 스마트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공통의 흥미가 있어서 함께 본다.	
	m10	나는 아이와 스마트미디어 콘텐츠를 보며 함께 웃는다.	
	m6	나는 어떤 스마트미디어 콘텐츠가 좋아서 아이와 함께 본다.	
	m9	내가 좋아하는 스마트미디어 콘텐츠를 아이와 함께 본다.	
교육적 중재	m4	나는 스마트미디어 콘텐츠의 등장인물이 하는 행동의 이유를 아이에게 알려준다.	.84
	m5	나는 스마트미디어 콘텐츠의 내용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이에게 설명한다.	
	m2	나는 스마트미디어 콘텐츠의 내용이나 등장인물이 하는 행동이 왜 좋은지 아이에게 설명해준다.	
	m3	나는 스마트미디어 콘텐츠의 내용이나 등장인물이 하는 행동이 왜 나쁜지 아이에게 설명해준다.	
기술적 제한	m1	나는 아이가 스마트미디어 콘텐츠를 볼 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85
	m21	나는 아이가 스마트미디어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필터프로그램을 사용한다.	
	m22	나는 필터프로그램 사용 이후에도 아이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통제한다.	
	m23	나는 아이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미디어 기기의 보호자 통제설정을 한다.	

표 6. 계속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내용	Cronbach's $\alpha$
적극적 안내	m17	나는 아이에게 스마트미디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76
	m16	나는 아이가 스마트미디어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때 칭찬해 준다.	
	m18	나는 아이에게 스마트미디어 상에서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m24	나는 아이가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할 때 옆에서 지켜본다.	
감독	m26	나는 아이가 스마트미디어를 이용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머문다.	.71
	m25	나는 부모가 함께 있을 때만, 아이가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도록 허락한다.	
전체(19문항)			.88

## 2. 유아기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하위유형과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역량의 관계

최종 확정된 유아기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척도의 하위유형들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역량인 스마트미디어 과의존과 자기조절력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차례로 실시하였다.

유아기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척도의 하위유형과 스마트미디어 과의존, 자기조절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은 교육적 중재, 적극적 안내, 감독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공동시청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기술적 제한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유아의 자기조절력은 교육적 중재, 적극적 안내, 감독과는 정적 상관을 공동시청과 기술적 제한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표 7. 유아기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척도의 하위유형과 스마트미디어 과의존, 자기조절력 간의 상관

구분	유아기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하위유형					스마트미디어 과의존	자기조절력
	공동시청	교육적 중재	기술적 제한	적극적 안내	감독		
스마트미디어 과의존	.09*	-.10*	.03	-.20***	-.13**	1.00	
자기조절력	-.03	.18***	.04	.31***	.18***	-.55***	1.00

\*  $p < .05$ , \*\*  $p < .01$ , \*\*\*  $p < .001$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유형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Durbin-Watson 1.77, 분산팽창계수(VIF) 1.29~2.30으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었고,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유형 중 교육적 중재를 제외한 공동시청, 기술적 제한, 적극적 안내, 감독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을 잘 예측하였으며, 4개의 유형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을 10% 설명하였다. 적극적 안내, 감독이 높을수록 기술적 제한과 공동시청이 낮을수록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이 낮았다.

표 8.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에 대한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유형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B	$\beta$	t(p)	R <sup>2</sup>	F	Durbin-Watson
공동시청	.21	.19	3.97***			
교육적 중재	-.08	-.06	-1.17			
기술적 제한	.32	.23	3.96***	.10	11.27***	1.77
적극적 안내	-.44	-.21	-4.08***			
감독	-.45	-.22	-3.47***			

\*\*\* $p < .001$ .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유형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Durbin-Watson 1.79, 분산팽창계수(VIF) 1.29~2.30으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었다.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유형 모두 유아의 자기조절력을 잘 예측하였으며, 5개의 유형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을 14% 설명하였다. 교육적 중재, 적극적 안내, 감독이 높을수록 공동시청과 기술적 제한이 낮을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력이 높았다.

표 9.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대한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유형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B	$\beta$	t(p)	R <sup>2</sup>	F	Durbin-Watson
공동시청	-.76	-.17	-3.62***			
교육적 중재	.53	.10	2.03*			
기술적 제한	-1.09	-.19	-3.27***	.14	16.32***	1.79
적극적 안내	2.56	.30	5.89***			
감독	1.46	.17	2.77***			

\*\*\* $p < .001$ .

### 3. 유아기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총점

#### 1) 총점 산출방식 모색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각 유형별 점수를 모두 합산해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총점을 구하였다. 이때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역량에 부정적 영향력을 보인 기술적 제한과 공동시청 점수를 역으로 채점하였다(허묘연, 2004). 합산한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총점과 하위유형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뒤 산출한 총점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역량인 스마트미디어 과의존과 자기조절력을 유의미하게 변별해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과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스마트미디어 중재 총점이 스마트미디어 중재 하위유형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스마트미디어 중재 총점은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던 교육적 중재, 적극적 안내, 감독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부정적 영향을 보였던 기술적 제한, 공동시청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표 10. 스마트미디어 중재 총점과 스마트미디어 중재 하위유형 상관

구분	유아기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하위유형					스마트미디어 중재 총점
	공동시청	교육적 중재	기술적 제한	적극적 안내	감독	
스마트미디어 중재 총점	-.39***	.50***	-.15***	.45***	.23***	1.00

\*\*\*  $p < .001$

그리고 스마트미디어 중재 총점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역량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1을 보면 스마트미디어 중재 총점은 스마트미디어 과의존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자기조절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유아기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총점과 스마트미디어 과의존, 자기조절력 간의 상관

구분	스마트미디어 과의존	자기조절력	스마트미디어 중재 총점
스마트미디어 과의존	1.00		
자기조절력	-.55***	1.00	
스마트미디어 중재 총점	-.29***	.32***	1.00

\*\*\*  $p < .001$

## 2) 총점의 예측력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총점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과 자기조절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2를 보면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총점은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에 8%의 설명력을 보이며 직접적인 영향( $\beta = -.29, p < .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총점이 높을수록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 수준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총점은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10%의 설명력을 보이며 직접적인 영향( $\beta = .32, p < .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총점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력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2. 스마트미디어 과의존과 자기조절력에 대한 스마트미디어 중재 총점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B	$\beta$	t(p)	R <sup>2</sup>	F	Durbin-Watson
	(상수)	33.64		17.69***			
스마트미디어 중재 총점	스마트미디어 과의존	-.24	-.29	-.6.69***	.08	44.75***	1.74
	(상수)	95.32		12.20***			
	자기조절력	1.10	.32	7.58***	.10	57.45***	1.83

\*\*\*  $p < .001$ .

마지막으로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총점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과 자기조절력을 유의미하게 변별해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 집단은 스마트미디어 과의존 총점을 기준으로 23점 이하는 일반군으로 24점 이상은 과의존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유아의 자기조절력 집단은 각 변인의 총점의 상·하위 25%에 속하는 사례를 기준으로 표 13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13.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역량 집단의 분류

집단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		유아의 자기조절력	
	과의존위험군	일반군	상위 25%	하위 25%
사례수	154	350	132	134
	504		266	
총점 평균(표준편차)	52.09(5.07)	53.89(5.53)	55.31(6.60)	51.16(4.96)
	53.34(5.46)		53.22(6.18)	

유아기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총점을 예측변인으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과 판별분석을 시행한 결과 하나의 판별함수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이 판별함수의 정준상관계수는 .15이었고, 유의도 검증결과 유의미했다( $\chi^2 = 11.79, df = 1, p < .001$ ). 또한 과의존위험군과 일반군의 변산성을 100% 설명해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했다. 이 판별함수에 의해 스마트미디어 과의존 집단이 최대한 구분되는데, 과의존위험군 집단중심치는 -.23, 일반군 집단중심치는 .10으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표 14.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 집단 평균의 유의도 검정

고유치	정준상관계수	Wilk's $\lambda$	$\chi^2$	df
.02	.15	.98	11.79***	1

\*\*\* $p < .001$ .

표 15.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 집단 판별함수계수에 의한 분류결과

	집단중심치	사례수	사례수(%)	
			과의존위험군	일반군
과의존 위험군	-.23	154	90(58.4)	64(41.6)
일반군	.10	350	144(41.1)	206(58.9)

분류정확률(Hit Ratio)=58.7%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척도의 총점을 예측변인으로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판별분석을 시행한 결과 하나의 판별함수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이 판별함수의 정준상관계수는 .34였고, 유의도 검증결과 유의미했다( $\chi^2 = 31.72, df = 1, p < .001$ ). 또한 자기조절력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변산성을 100% 설명해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했다. 이 판별함수에 의해 스마트미디어 과의존상·하위 집단이 최대한 구분되는데, 상위 집단중심치는 .36, 하위집단 집단중심치는 -.35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표 16. 유아의 자기조절력 집단 평균의 유의도 검정

고유치	정준상관계수	Wilk's $\lambda$	$\chi^2$	df
.13	.34	.89	31.72***	1

\*\*\* $p < .001$ .

표 17. 유아의 자기조절력 집단 판별함수계수에 의한 분류결과

	집단중심치	사례수	사례수(%)	
			상위 25%	하위 25%
상위 25%	.36	132	70(53.0)	62(47.0)
하위 25%	-.35	134	26(19.4)	108(80.6)

분류정확률(Hit Ratio)=66.9%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다양한 부모의 미디어 중재유형을 포괄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정보문화 생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유아기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척도를 타당화하고 그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더불어 새롭게 타당화한 유아기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유형들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과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그 방향성을 반영해 총점 산출방식을 모색하였다. 그 과정에서 산출한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척도의 총점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과 자기조절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가도 검증하였다.

첫째, 유아기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척도는 5개의 하위유형(공동시청, 교육적 중재, 기술적 제한, 적극적 안내, 감독) 총 19문항으로 구성되며, 적합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가진다. 기존 부모 미디어 중재 관련 선행연구들(Nikken & Jansz, 2014; Nikken & Schols, 2015; Valkenburg et al., 1999)에서 밝혀진 중재유형을 포괄하여 구성한 26개의 예비문항에 대해 전문가 집단이 문항 이해도 및 적합성 검증을 검토하고, 스마트미디어 사용경험이 있는 만 5세 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내용타당도와 안면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이후 표집집단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교차타당화를 진행하였으며 1차 타당화 결과 ‘공동사용’ 5문항, ‘교육적 중재’ 5문항, ‘기술적 제한’ 3문항, ‘적극적 안내’ 3문항, ‘감독’ 3문항, 총 19문항으로 이루어진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2차 타당화 결과 측정모형이 모두 권장 적합도 수준을 만족하여 유아기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의 구성개념과 도출된 19문항이 잘 부합하였다. 마지막으로 타당화한 유아기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척도의 수렴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정한 결과 타당하고 신뢰로운 척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타당화한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유형의 구성개념은 다음과 같다. ‘공동시청’은 부모가 자녀와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스마트미디어 콘텐츠를 공유하고 즐겨보는 중재유형으로 ‘내가 좋아하는 스마트미디어 콘텐츠를 아이와 함께 본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된다. 공동시청은 부모와 자녀가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는 동안 부모의 특별한 설명이나 안내가 일어나지 않는 중재유형으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 안내, 교육적 중재와 구분된다. 부모가 공동시청 중재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우 유아기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이 증가하지만,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혹은 미치지 못하기도 한다(김은지, 2020; 최양미 등, 2021). 이는 공동시청을 사용하는 부모가 스마트미디어 중재 행위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의식적 동기에 기인할 수도 있고 혹은 단순히 스마트미디어를 즐기고자 하는 오락적 동기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으로(이숙정, 전소현, 2010) 추측할 수 있다. 부모가 의식적 동기에 기인해 공동시청 중재유형을 적극적 안내와 동시에 사용한다면 자녀의 미디어 관련 위험 발생률(Chen & Shi, 2019)을 낮출 수 있지만, 오락적 동기에 기인해 단순히 자녀와 스마트미디어 콘텐츠를 즐겨보는 행위에 그친다면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만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시청은 기본적으로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을 증가시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이후 어떤 스마트미디어 중재유형과 함께 사용되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도 있는 중재유형으로 볼 수 있다.

‘교육적 중재’는 부모가 자녀가 시청한 스마트미디어 콘텐츠의 내용과 관련한 실제적 의미, 등장인물 행동의 이유 등에 대해 설명을 제공하는 중재로 ‘나는 스마트미디어 콘텐츠의 등장인물이 하는 행동의 이유를 아이에게 알려준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된다. 교육적 중재는 적극적 안내와 함께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중재유형이지만, 부모의 설명방식의 차이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이숙정, 전소현, 2010). 실제로 자녀의 연령이 낮거나 폭력적인 콘텐츠 노출이 적은 경우 서술형 문장의 설명이 폭력적인 콘텐츠에 대한 흥미를 감소시켰고, 청소년기의 자녀나 폭력적인 콘텐츠 노출이 빈번한 경우 질문형 문장이 폭력적인 콘텐츠에 대한 흥미를 감소시키는데 더 효과적이었다(Nathanson & Yang, 2003).

‘기술적 제한’은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스마트미디어를 차단, 잠금하기 위한 안전 프로그램, 사이트, 앱을 활용하는 중재로 ‘나는 아이가 스마트미디어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필터프로그램을 사용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된다. 기술적 제한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한 중재유형으로 유아의 미디어 사용량을 줄이기는 하지만 바람직한 습관을 형성하는 것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박인서, 백영민, 2021). 비교적 최근 등장한 중재유형이지만 유아기 부모 약 30%가 사용하며 학령기 이후에는 약 42%로 증가해 초등학생 자녀의 부모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중재유형이다(이창호, 2021).

‘적극적 안내’는 부모가 자녀와 스마트미디어 사용과 관련한 규칙, 올바른 사용법, 부정적 상황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중재로 ‘나는 아이에게 스마트미디어 상에서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된다. 적극적 안내는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용을 격려하는 중재유형으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을 낮춘다(김은지, 2020). 따라서 부모는 유아의 바람직한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위해 부정적

상황이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

‘감독’은 부모가 자녀가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며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원거리에서 지켜보는 중재로 ‘나는 아이가 스마트미디어를 이용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머문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된다. 부모의 감독은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을 감소시키고(이창호, 장석준, 2022),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을 낮춘다(이채진, 이영신, 2021). 따라서 유아기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있어 부모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녀가 부모의 지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를 모두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현대의 부모는 다양한 스마트미디어 중재유형을 사용해 유아기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지도하고 있다. 앞서 논의하였듯 부모들이 사용하는 스마트미디어 중재유형은 그 유형별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과 발달에 작용하는 영향력이 다르고, 부모는 다양한 스마트미디어 중재유형을 중복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기존의 미디어 중재 척도는 부모가 사용하는 중재유형을 밝히고 각각의 중재유형을 어느 정도의 빈도로 사용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에 그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유형을 파악하는 것에서 나아가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유형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역량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자녀의 건강하고 주체적인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지원하는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역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둘째,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유형 중 감독, 적극적 안내, 교육적 중재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기술적 제한, 공동시청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확정된 유아기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유형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과 자기조절력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은 교육적 중재, 적극적 안내, 감독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공동시청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기술적 제한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유아의 자기조절력은 교육적 중재, 적극적 안내, 감독과는 정적 상관을 공동시청과 기술적 제한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적극적 안내, 감독이 높을수록 공동시청과 기술적 제한이 낮을수록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이 낮았다. 또한 적극적 안내, 교육적 중재, 감독이 높을수록 공동시청과 기술적 제한이 낮을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력이 높았다.

실제로 어머니가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대해 자녀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는 중재 행위를 하는 경우 유아는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을 존중받으며 결국 스마트미디어 과의존이 낮아진다(김은지, 2020). 또한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원거리에서 지켜보는 중재행위를 하는 경우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을 줄일 수 있다(이창호, 장석준, 2022). 반면, 자녀와 스마트미디어 콘텐츠를 단순히 함께 시청하는 행위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을 증가시킨다(최양미 등, 2021).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잠금 프로그램, 앱, 사이트 등을 활용하는 경우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있어 바람직한 습관을 형성하는 데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박인서, 백영민, 2021).

또한 부모가 유아에게 적절한 통제를 하거나, 유아와 함께 대화를 통해 규칙을 정하는 것과 같은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유아가 스스로 주어진 상황을 잘 통제하고 억제하는 모습을 보인다(김효정, 이희선, 2015). 즉,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규칙, 사용방법 등에 대해 대화를

하는 적극적 안내와 스마트미디어의 콘텐츠의 내용적 측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는 교육적 중재 그리고 원거리에서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살펴보며 개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는 감독 유형의 중재를 부모가 많이 사용할수록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과 함께 적절한 통제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수시로 경험할 수 있고 억제조절력 향상과 충동성 감소와 같은 자기조절력의 발달로 이어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반면,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통제를 통해 한계를 설정하는 훈육방식은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설경옥, 문혁준, 2018). 그리고 부모의 무조건적으로 허용적이고 방임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유혹저항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강기숙, 이경남, 2001). 기술적 제한은 유아의 자발적인 조절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가 프로그램, 사이트, 앱을 활용해 일방적으로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허용하고 차단하기 때문에 유아 스스로 스마트미디어를 조절해 보는 기회의 부족으로 이어져 자기조절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동시청은 부모가 유아와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는 동안 별다른 지도나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함께 시청하기 때문에 유아의 유혹저항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자기조절력의 발달을 저해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역량을 대표하는 스마트미디어 과의존과 자기조절력에 대해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유아기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유형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부모가 적극적 안내, 교육적 중재, 감독을 지향하고, 공동시청과 기술적 제한을 지양할수록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모의 교육적 중재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역량 중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유아의 자기조절력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가 유아기 자녀에게 스마트미디어 콘텐츠의 내용과 등장인물에 대해 직접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방식이 콘텐츠 이해력과 비판적 분석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윤보람, 2020), 절대적인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을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부모의 교육적 중재가 자녀가 스마트미디어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에서 유아는 건전하고 바른 스마트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선택과 조절력을 기를 수 있어 자기조절력에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적 중재가 절대적인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을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에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유아기 자녀의 건강하고, 주체적인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지원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이 척도를 활용하기 위해 유아기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총점 산출방식을 모색하였다. 유아기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총점을 산출하기 위하여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보인 공동시청과 기술적 제한 하위유형의 점수를 역으로 채점하고, 역채점한 점수와 긍정적 영향력을 보인 적극적 안내, 교육적 중재, 감독 하위유형의 점수를 합산하였다. 이러한 총점 산출방식은 ‘청소년이 자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과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허묘연, 2004). ‘청소년이 자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에서는 준거요인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하위유형들을 역으로 채점하여 그 총점을 산출한 뒤에 회귀분석과 판별분석을 실시하여 그 예측력을 확인하였다(허묘연, 2004). 본 연구에서도 유아기 부모 스마트

미디어 중재 하위유형이 준거요인인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 자기조절력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파악하여 총점 산출에 대한 근거로 활용하였으며, 상관분석과 더불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근거를 더욱 탄탄히 하였다.

다음으로 유아기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총점이 실제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과 유아의 자기조절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 회귀분석,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스마트미디어 중재 총점은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과 부적 상관을 자기조절력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총점이 높을수록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은 낮아지고, 자기조절력은 높아졌다. 따라서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총점은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과 자기조절력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판별분석을 실시해 그 예측력을 확인한 결과,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총점은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과 자기조절력 집단을 유의미하게 변별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유아기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총점은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과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미치고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역량을 예측할 수 있는 점수로 부모가 유아기 자녀의 주체적이고 건강한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지원하는가를 판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2021년 유엔(UN: United Nations)이 채택한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아동권리에 대한 일반 논평 제 25호’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더불어 미국, 영국, 중국 등 세계 28개 국가는 국제협약을 맺고 아동의 디지털 권리에 대한 보장, 증진, 존중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UN, 2021).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은 단순한 노출을 넘어 생활이자 일상이며, 올바른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위한 논의는 세계적 관심사다. 스마트미디어 시대를 살아갈 유아들에게는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막고 통제하기보다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사용역량 교육이 필수다(강은진, 2021).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본 연구의 유아기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총점은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역량이 올바르게 발달할 수 있도록 부모가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2년 정부는 스마트미디어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새롭게 발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022).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부모가 자녀 세대를 이해하고 올바른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지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지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모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흐름에 학계에서도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지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촉구된다. 본 연구에서 모색한 유아기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총점은 앞으로 개발되고 실행될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지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는데도 그 쓰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결과론적 관점에서 유아기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척도를 타당화 하여 유아기 전반에 걸친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스마트미디어 사용경험이 있는 만 5세 유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로 전체 유아 집단에 일반화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기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척도의 일반화를 위해 표집 대상을 확대하여 본 척도의 요인 구조의 안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자료는 모두 부모의 자기보고법에 의해

측정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행위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역량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수집을 위하여 심층면담이나 관찰자료 등 다양한 접근을 활용해 보다 심도 깊은 자료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최신의 정보문화 생태환경을 반영하면서 다양한 부모의 미디어 중재유형을 포괄하여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타당화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새롭게 구성한 유아기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유형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의 방향성을 살펴 유아기 자녀의 올바른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지원하고 지도할 수 있는 중재유형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총점 산출방식을 모색해 올바른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역량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측정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유아기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척도가 유아의 건강하고 주체적인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지원하는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고,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역량을 발달시키기 위한 가정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기숙, 이경님 (200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려성이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2(4), 115-132.
- 강은진 (2021). 아동권리측면에서 바라본 유아 미디어 이용과 교육. **육아정책포럼**, 69, 15-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관계부처 (2022). **제 5차 (지능정보서비스의 건전한 활용을 위한) 스마트폰 · 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기본계획(2022~20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iapc.or.kr](http://www.iapc.or.kr) 에서 2022년 12월 2일 인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2021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iapc.or.kr](http://www.iapc.or.kr)에서 2022년 10월 30일 인출
- 김경철, 오아름 (2014). 자기통제력 검사 도구의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연구**, 34(2), 185-206.
- 김나리, 김정민, 전정은 (2019).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이중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0(4), 95-107. <https://doi.org/10.5723/kjcs.2019.40.4.95>
- 김민석, 문혁준 (2015).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실태 분석 및 부모 관련 변인 연구. **인간발달연구**, 22(1), 77-99. <https://doi.org/10.15284/kjhd.2015.22.1.77>
- 김민희 (2015). 유아의 자기조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스마트기기 중독이 유아의 스마트기기 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6), 133-151. <https://doi.org/10.14698/jkce.2015.11.133>
- 김은지 (2020). 어머니의 스마트미디어 자기효능감과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중독 경향성 간의 관계: 어머니의 스마트미디어 이용 지도와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이용 시간의 이중매개효과.

- 가정과삶의질연구, 38(4), 59-79. <https://doi.org/10.7466/JFBL.2020.38.4.59>
- 김은지, 전귀연 (2020).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이용이 인지와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미디어 중독 경향성의 매개효과와 어머니의 스마트미디어이용 지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8(1), 13-29. <https://doi.org/10.6115/fer.2020.002>
- 김은진 (2021). ‘유튜브 육아’연구: 육아 과정에서 어머니의 유튜브 이용과 통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5(3), 41-85. <https://doi.org/10.47020/JLC.2021.08.25.3.41>
- 김효정, 이희선 (2015). 어머니 양육행동 및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간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15(4), 113-134.
- 박라진 (2016). 유아의 실행기능 및 부모중재가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인서, 백영민 (2021). 어린이 미디어 이용에 관한 부모 중재효과 연구: 성향점수매칭을 활용한 복합설문분석. **한국언론학보**, 65(6), 5-46. <https://doi.org/10.20879/kjics.2021.65.6.001>
- 박혜선, 김형모 (2016).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3), 498-512. <https://doi.org/10.5392/JKCA.2016.16.03.498>
- 서우석 (2021). **코로나19와 디지털 여가활동의 변화**. 통계개발원 편, **한국의 사회동향 2021 통계청** (pp. 237-245). 통계청 통계개발원
- 설경옥, 문혁준 (2018).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교사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5(2), 187-210. <https://doi.org/10.22155/JFECE.25.2.187.210>
- 손영미, 신규리 (2021). 코로나 19 시기, 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워킹맘의 여가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5(3), 259-273. <https://doi.org/10.26446/kjlrp.2021.9.45.3.259>
- 안정임 (2008). 인터넷 이용 중재유형과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2(6), 230-266.
- 양옥승, 김정림, 양유진 (2020).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 발달과 교육**. 양서원.
- 윤보람 (2020). 어머니의 미디어리터러시가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의 스마트미디어 중재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장우 (2013).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도래 및 발전 방향. **방송공학회지**, 18(1), 10-22.
- 이숙정, 전소현 (2010). 인터넷 중독에 대한 부모 중재 효과 연구. **한국방송학보**, 24(6), 289-322.
- 이순목 (2000). **요인분석의 기초**. 교육과학사.
- 이종은, 김지윤, 박은혜, 강현아 (2017). 모-자녀 상호작용이 유아의 수면시간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미디어 이용 정도를 매개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3(6), 163-179. <https://doi.org/10.14698/jkce.2017.13.06.163>
- 이창호 (2021). **초등학생 부모의 자녀 미디어이용에 대한 중재방식**.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41-259.
- 이창호, 장석준 (2022). 어린이의 유튜브 및 게임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중재요인 분석:

- 미취학아동 및 취학아동 (초등저학년) 비교. *어린이미디어연구*, 21(1), 197-213. <https://doi.org/10.21183/kjcm.2022.03.21.1.197>
- 이채진, 이영신 (2021).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미디어 중재의 매개 효과. *인성교육연구*, 6(2), 169-193. <https://doi.org/10.46227/JCER.6.2.9>
- 장지우, 김선희 (202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스마트미디어 방임적 중재 및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의 구조적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8(6), 1-19.
- 조연하, 배진아 (2010).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가정 내 미디어 이용중재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13), 37-74.
- 최아라, 조윤미, 류현강 (2022).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성의 구조적 관계. *아동학회지*, 43(2), 111-123. <https://doi.org/10.5723/kjcs.2022.43.2.111>
- 최양미, 김보현, 임지영, 이은영 (2021). 부모중재 특성이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2), 465-483.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2.465>
- 최이숙, 김반야 (2021). '위험한 미디어 vs 든든한 육아 도우미': 영유아 스마트 미디어 이용 담론에 대한 탐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8), 515-525. <https://doi.org/10.5392/JKCA.2021.21.08.515>
- 탁진국 (2007).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학지사.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2020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www.kpf.or.kr](http://www.kpf.or.kr)에서 2022년 10월 11일 인출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정보문화포럼 정책연구보고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www.iapc.or.kr](http://www.iapc.or.kr)에서 2022년 2월 15일 인출
- 허묘연 (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2), 170-189.
- Burroughs, B. (2017). YouTube Kids: The App Economy and Mobile Parenting. *Social Media + Society*, 3(2), 1-8. <https://doi.org/10.1177/2056305117707189>
- Bybee, C. R., Robinson, D., & Turow, J. (1982). Determinants of parental guidance of children's television viewing for a special subgroup: Mass media scholar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26(3), 697-710. <https://doi.org/10.1080/08838158209364038>
- Chen, L., & Shi, J. (2019). Reducing harm from media: A meta-analysis of parental mediation.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96(1), 173-193. <https://doi.org/10.1177/1077699018754908>
- Cohen, D. D., Voss, C., Taylor, M., Delextrat, A., Ogunleye, A. A., & Sandercock, G. (2011). Ten-year secular changes in muscular fitness in English children. *Acta Paediatrica*, 100(10), 175-177. <https://doi.org/10.1111/j.1651-2227.2011.02318.x>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https://doi.org>



- /10.1037/1082-989x.1.1.16
- Kendall, P. C., & Wilcox, L. E. (1979). Self-control in children: development of a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6), 1020-1029. <https://doi.org/10.1037/0022-006x.47.6.1020>
- Livingstone, S., & Helsper, E. J. (2008). Parental mediation of children's internet use.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52*(4), 581-599. <https://doi.org/10.1080/08838150802437396>
- Nathanson, A. I. (2001). Parent and child perspectives on the presence and meaning of parental television mediation.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5*(2), 201-220. [https://doi.org/10.1207/s15506878jobem4502\\_1](https://doi.org/10.1207/s15506878jobem4502_1)
- Nathanson, A. I., & Yang, M. S. (2003). The effects of mediation content and form on children's responses to violent televis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9*(1), 111-134. <https://doi.org/10.1111/j.1468-2958.2003.tb00833.x>
- Nikken, P., & Jansz, J. (2006). Parental mediation of children's videogame playing: A comparison of the reports by parents and children. *Learning, Media and Technology, 31*(2), 181-202. <https://doi.org/10.1080/17439880600756803>
- Nikken, P., & Jansz, J. (2014). Developing scales to measure parental mediation of young children's internet use. *Learning, Media and Technology, 39*(2), 250-266. <https://doi.org/10.1080/17439884.2013.782038>
- Nikken, P., & Schols, M. (2015). How and why parents guide the media use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11), 3423-3435. <https://doi.org/10.1007/s10826-015-0144-4>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McGraw-Hill.
- Sigman, A. (2009). Well connected? The biological implications of 'social networking'. *Biologist, 56*(1), 14-20.
- Sigman, A. (2012). The impact of screen media on children: a Eurovision for parliament. *Improving the Quality of Childhood in Europe, 3*, 88-121.
- UN: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2021, March). *General Comment No. 25 (2021) on Children's Rights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 Retrieved Desember 4, 2022 from <https://www.ohchr.org/en/documents/general-comments-and-recommendations/general-comment-no-25-2021-childrens-rights-relation>
- Valkenburg, P. M., Krcmar, M., Peeters, A. L., & Marseille, N. M. (1999). Developing a scale to assess three styles of television mediation: "Instructive mediation", "restrictive mediation" and "social covieing".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3*(1), 52-66. <https://doi.org/10.1080/08838159909364474>

논문투고: 22.12.15.

수정원고접수: 23.01.25.

최종게재결정: 23.02.06.